

편견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하시길 빕니다.

매년 4월 20일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부터 이날이 시작되어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교구는 장애인의 날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안에서 기념행사(흔자리축제)를 개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모두가 전염병으로 힘든 이 고통의 시기가 늘 고통받아왔고 고통에 고통이 가중되는 장애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가 40년째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장애인을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편견은 장애인을 불편한 대상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무르기만을 바라게 합니다. 2018년 평창에서 장애인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불과 몇 달 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던 장애 학생 부모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뚜렷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을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동료, 형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 사건이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혜택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차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쉽게 차별로 이어집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늘어나고, 길거리에 점자블록이 깔리고, 신호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의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비장애인과 어울려 노동하는 장애인들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장애인에 대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실천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사회에 모범을 제시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당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보다 더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총 258만여 명입니다(2018년 통계청 자료). 그리고 2018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39만 2천여 명(서울시 전체인구의 4.0%)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교구의 모든 본당마다도 평균 4%의 장애인 신자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2,000명인 본당이라면 적어도 80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당에서 그 정도로 많은 장애인이 미사에 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성당에 나오기 어려운 여건 때문이 아닐까요?